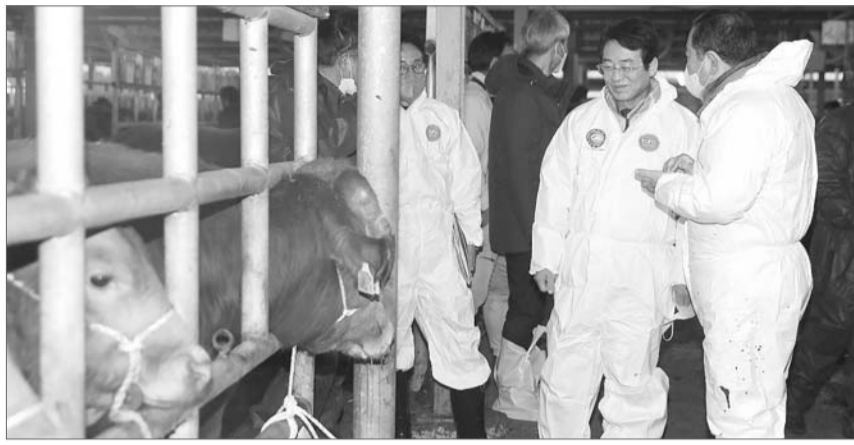


강진 우시장 '18억 투입' 명품한우 브랜드 전국화

'한우 전자경매 대목장' 열려... 소 값 하락 대책 마련 등 소통 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 9억원 확보... 우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강진군 우시장에서는 9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한우 전자경매 대목장'이 열렸다. 이날 새벽 강진원 강진군수가 우시장을 방문해 출하 농가 격려와 함께 축협·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한우 시장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9일 새벽 강진원 군수가 설맞이 대목장을 방문하여 한우농가 격려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강 군수는 출하에 참여한 한우 사육 농가 및 우시장 종사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우 가격 하락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장시간 청취하며 "가격 하락 등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우 등급률 향상 조정, 사료값 지원, 시설 현대화 등 단계별 우시장 활성화 전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진군은 축협과 함께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분을 6억2천여 만원을 들여 긴급 지원한 바 있다.

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시장을 전면 보수할 예정이다. 확보한 도비 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축시장을 보수·신축하고 전자경매시스템 등 현대화시설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소값 하락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한우 1등급 이상 평균 등급률을 7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우 등록부터 정액공급, 선형 심사, 전자급별, 등급향상제, 장려급 지원까지 맞춤형 한우 개량 사업을

특히 강진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군특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 가축유

2001년 3월에 개장, 올해 22년째 이용 중인 강진 우시장은 연간 16,000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송아지 브랜드 경매시장과 활퇨우 경매시장'을 월 2회 별도 운영해 전국 송아지 공급기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시설 탓에 계류된 소가 탈출하는 등 한우농가 및 방문 이용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강진군은 예산확보 즉시 계류대 안전시설 및 소독시설 등 가축시장등을 완전히 교체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전자경매시스템으로 경매정보를 개체별로 안내하고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선진 경매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 군수는 "전남에서 2~3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강진 우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유전체 검사를 통한 개량 등 강진 명품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에 전념하겠다"면서 "특히 사료값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TMR 자가사료 배합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가의 노동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만큼 한우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 '호응'

농업인 노동력 절감 기대

신안군은 지난 5일 군청에서 관내 드론 보유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 사용 농가가 많아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드론 이착륙 시 발생하는 다량의 흙먼지 및 드론 방제를 위한 농경지 이동 시 반복적인 드론 적재로 인한 힘든 육체노동 등이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안군은 드론 사용농가 167명과 14개 읍면장을 대상으로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를 개최한 것이다.

드론 이착륙시설은 1톤 화물차에 드론을 고정해 기존 2인 1조 드론방제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방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는 힘든 육체노동 및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여 1일 방제 가능 면적확대에 따라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드론 이착륙시설은 드론 보유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농작업 방제 등에 대한 애로와 불편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현재 드론 보유 농가는 167가구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무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는 20일까지 모집

무안군이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 8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명으로 총 95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화 등 54개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향토전통기술 전수사업, 여성원어민 강사 아동학습지원 등 8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수급자, 타 일자리 중복 참여자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무안=박태연 기자

해남, 전남도 농업분야 평가 '3관왕' 달성

농정업무종합평가 대상 이어 친환경농업 분야·식량원에평가 최우수상

해남군이 2022년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에 이어 친환경농업 분야 최우수기관, 식량·원에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농정분야 평가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

해남군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역대 고소득 농업인 720명 최다 육성을 비롯해 외국인계절근

로자 프로그램 추진, 논 타작물 재배 182ha, 온라인 소비 확대에 따른 '남도장터' 입점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2 친환경농업대상 지자체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친환경농업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품목다양화 등 친환경농업 기반확충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시책 추진 등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더불어 식량·원에평가에서도 벼 적정재배 면적 확보, 농업정책보험 가입 확대와 시설 하우스 면적확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산단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80% 지원

목포시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타지역으로의 인재 유출 예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신청일 기준 6개월 미

만의 신규채용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이 있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신규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9~20일까지이며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목포시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접수하면 된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 설날장사씨름대회 추진 박차

추진상황 2차 보고회...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



영암군은 9일 군청 남산실에서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우승회 영암군수를 비롯하여 관련 실과소장 및 팀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위한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및 안전대책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2023설날장사씨름대

회가 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의 고장 영암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수과 관람객 모두 안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전국 25개팀, 3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모래란 위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되며, 경기 후 푸짐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해남군)에 기부하고
해남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2023. 1. 시행)

수원 기부해남군 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1석3조
기대효과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해남에서 준비한 답례품을 드립니다.